

변수(邊脩 : 1447~1524)묘 출토 요선철릭에 관한 연구

최 은 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A Research on Waist lined Coat with Pleats based on the Excavated Costume from the *Byun-su*(1447-1524)Tomb

Eun-Soo Choi

Curator,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3. 6. 9 투고)

ABSTRACT

Waist lined Coat with Pleats excavated from *Byun-su*(1447-1524) Tomb in *Yangpyeong* were very similar in size to the costume of *Haeinsa* Temple which is the oldest *YosunChollik* up to now. *YosunChollik* was popularly worn in the *Yuan* Dynasty of China(元) and it is presumed to be flown into Korea in that period.

In China, the coat with a straight collar was called *ByeonseonOh* , and one with a round collar was called *ByeonseonOhja* in the *Yuan* Dynasty. The excavated relics of *Haeinsa* Temple are almost same as *ByeonseonOh*. In the *Myoung* Dynasty(明), the coat with a straight collar was called *YoseonOhja*, and one with a round collar was called Round collar *YoseonOhja* . The Waist lined Coat with Pleats excavated in the *Byunsu* Tomb is same as *YoseonOhja*

Attendants who is low in position and doctors used to wear the coat, which was spread to diverse classes by degrees. Later, even emperors and high ranking officials used to wear it as military uniforms. It was made of silk and summer cloth.

As mentioned above, I examined its history carefully through Chinese documents and photographic materials on relics. In addition, with the authentic records of Korea and the excavated relics of the *Byun-su* Tomb, I analyzed its components. However, the analysis was very restricted because the relics to be compared with were few.

Key words : Excavated dresses from graves(출토복식), *Joeseun* Dynasty(조선시대),
Waist lined Coat with Pleats(요선의복), *YoseonOhja*(요선오자)

I. 서론

1997년 11월, 경기도 양평군 창대리의 변수(邊脩:1447~1524)분묘에서 다량의 복식류와 목우, 지석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묘주인 변수는 고려 공민왕때 노국공주를 따라 중국에서 고려에 들어와 높은 벼슬을 지낸 변안렬(邊安烈:1334~1390)의 4세손이다. 세종29년(1447)에 출생하여 중종 1년(1506)에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2등)이 되었고 관계가 가선대부(종2품)로 올랐으며 원천군으로 책봉되었다. 중종 19년(1524)에 78세로 졸(卒)하기까지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행적과 업적이 상세히 실려있어 본 유물의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

변수묘는 지금까지 보고된 조선전기의 분묘 중 연대가 확실한 세 번째¹⁾로 분묘의 유구와 출토유물은 당대의 상장례 제도는 물론, 염습의 제도와 복식의 유형, 형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출토된 복식류는 요선철릭 3점을 포함하여 단령 2점, 답호 7점, 철릭 13점, 저고리 1점, 바지 2점, 모자 1점, 도아 1점, 악수 1쌍 등 30점에 이르고, 그 외 먹묵, 이불 등의 염습구 2점이 있다.

출토복식류 중 철릭이 16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허리에 선장식이 있는 요선철릭이 3점 포함되어 있다. 1997년 해인사에서 나온 송부개 요선철릭 이후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²⁾된 것은 처음이다.

요선철릭의 연원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명칭은 ‘변선오(辮線襖)’·‘변선오자(辮線襖子)’ 등으로 불리었으며, 원대와 명대를 거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요선철릭의 착용기록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고문헌과 사진자료들은 통하여 요선철릭의 연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에는 송부개의 요선철릭³⁾을 참고로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변수의 요선철릭을 통하여 다른 철릭의 구성법과 복식사적 가치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법에 관한 체계는 선행연구⁴⁾를

참고로 하였으며, 제시하는 자료의 작성법이 추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더 좋은 방안과 방향의 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요선의복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중국

중국의 철릭은 몽골족 특유의 상의하상(上衣下裳)식의 의복양식으로 허리 아래에 주름이 있다. 원대 중엽 이후 형성되어 명대까지 여러 가지 종류로 분화되었고,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원대에 철릭의 원류와 연관된 것으로 반수철릭이 있으며, 철릭·변선오·등근깃 변선오자를 볼 수 있다. 변선오의 형태는 철릭과 같으나 허리부분에 변선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등근깃 요선오자는 명의 각기(刻期) 관복(官服)인 요선오자의 원류로 생각되는 옷이다. 원대의 철릭과 대체로 연대를 같이하는 우리나라의 고려 중후기 철릭의 모습은 『악학궤범(1493)』관복도설의 철릭으로 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⁵⁾

『중국복식사(中國服飾史)』⁶⁾에 “몽고족 남녀는 모두 장포 위주이며, 양식이 크고 복식제도는 혼란하다. 남자는 평일에 한거할 때는 착수포를 입었다. 원령은 넓고 큰 앞자락을 하였으며, 허리부분은 변선(辮線)을 철하였다. 관위요(寬圍腰)를 만들거나 혹은 단추를 줄지어 달았다. 아래쪽은 꺾어 잔주름을 만들었다. 속칭 ‘변선오자(辮線襖子)’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고려시대 송부개 요선철릭은 원대의 변선오·등근깃 변선오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대에도 철릭·요선오자·등근깃 요선오자가 계속 유행했으며, 주름잡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름포, 즉 곧은깃 요선오자·등근깃 요선오자·예살·대습·순습 등의 벽적포들을 볼 수 있다. 명대의 곧은 깃 요선오자는 원대의 변선오와 같은 형태의 옷으로 보인다.⁷⁾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주름포가 유행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포 전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이 잡혀있는 철릭만 출토되었다. 변수묘 요선철릭은 이전에는 발견된 예가 없는 것으로 명대의 요선오자와 유사한 형태의 포로 추측된다.

<표 1>에 나타난 원사·명사의 문헌기록과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면,

1) 명칭 및 특징 : 원대에는 요선·변선·변선오·변선오자·요선오자 등이라고 하였는데⁸⁾, 명대에는 예살이라고 하였으니 시대에 따라 그 의복명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대의 요선오자 혹은 변선오자와 같은 형태에서 소매를 짧게 하거나 제거한 것을 명대에는 고습이라고 했고, 또 고습에 소매를 길게 한 것을 예살이라고 하였으니 결국 고습과 예살은 원대의 요선오자 혹은 변선오자의 유제임을 알 수 있다.⁹⁾

원대에 사용된 명칭은 곧은 깃인 경우에 ‘변선오’라 하였고, 둥근 깃은 ‘둥근깃 변선오자’라고 명명하였다. 고려시대와 비교하면 송부개의 요선철릭은 원대의 곧은 깃 변선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명대에 사용된 명칭은 곧은 깃인 경우에 ‘요선오자’라 하였고, 둥근깃은 ‘둥근깃 요선오자’라고 명명하였다.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변수묘의 요선철릭은 명대의 ‘요선오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흑달사략(黑韃事略)』에 요선오자는 ‘허리에 요선을 둘렀다’. ‘또 홍자색의 백(帛)을 사용하여 그것을 꼬아 선을 만들어 가로로 허리에 부착시키고 이르기를 요선이라 한다. 말 위에서 허리를 팽팽하게 졸라매어 돌출시키는데 화려한 것[채염:采黷]을 즐겨 사용한다.’ 요선오자는 변선을 넣고 가늘게 주름을 잡은 의위(儀衛)복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허리에 주름을 잡은 텔릭형의 의복 중에서도 방령오자와 요선오자는 최고위층의 복식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흑달사략』에 묘사된 요선은 돌출되도록 꼭 졸라맨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선의 일차 목적은 본래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 신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유목생활을 위한 복식 요소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조선시대 분묘에서 발견되는 품이 넓은 요선오자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요선의 장식적인 면모가 강

하게 표현된 변형요선오자로 해석될 수 있다.¹⁰⁾

요선오자라는 명칭은 《노걸대》의 《원노》에서 두 차례 확인된다¹¹⁾. 홍색이고, 봄에 입는 의복으로 기록되어 있다. 《흑달사략(黑韃事略)》에서는 요선에 관하여 “또 홍자색의 백(帛)을 사용하여 그것을 꼬아 선을 만들어 가로로 허리에 부착하고 이르기를 요선(腰線)이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¹²⁾. 원노의 문장에서도 비단으로 지은 요선이란 문장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록들은 요선오자의 요선이 띠와 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려준다. 즉, 요선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요선을 따로 제작하여 허리에 봉제하거나 또는 몸판에 직접 턱을 잡아 요선을 만드는 두가지 방법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¹³⁾

2) 깃형태 : 유물의 깃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곧은 깃[직령(直領)], 둥근 깃[곡령(曲領)], 네모난 깃[방령(方領)]의 3종류가 보인다.

3) 의복 색깔 : 다양한 색깔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문헌에는 비색·자색·청색·홍색이 있다.

4) 요선의 유형 : 유물에서 살펴보면 요선을 제작한 방식은,

가. 몸판에 직접 턱을 잡아 만든 것

나. 짠 끈을 부착하거나, 비단을 꼬아 선을 만들어 부착한 것이 있다.

5) 덧장식 : 유물에서 보면, 허리부분의 요선 위에 교구가 있는 대를 매거나 자족띠를 매고 그 위를 대쉬로 장식한 것이 있다.

6) 착용자의 신분 : 처음에는 신분이 낮은 시종, 의위들이 입었으나 점차 다양한 계층이 착용하였으며, 상층 계급에서도 착용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황제나 대신들도 편하게 활동해야 할 때는 융복으로 입었다.

7) 요선의복에 사용된 직물 : 문헌에서 보면, 라·주 등의 비단류와 직금류, 저사 같은 직물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사계절 옷감이 모두 사용된 것 같다.

<표 1> 元史·明史에 나타난 辮線襖

출처	직책	명칭	색깔	재료	기타 부속품	비고
元史	권 78 여복지제28	儀衛	辮線襖	緋		
			窄袖袍	羅		
			窄袖襖			
			樂工襖	青	錦明珠	
	권 79 여복지제29	領宿衛騎士	世褶辮線襖	紫		幘頭, 帶, 烏鞋
		外仗	世褶辮線襖	紫		幘頭, 塗金束帶, 烏鞋
	권 80 여복지제30	宮內導從	辮線襖	紫	羅	唐巾, 塗金束帶, 烏鞋
明史	권67지제43 여복 3	刻期	腰線襖子			
		協律郎 樂舞生	世褶襖子	紅	紵絲	方頂巾
		北翟四人	世褶襖子			
		四夷樂工	世褶襖子			

2. 한국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요선의가 철릭과 같은 상의하상 연결식 포제에 행하여졌음이 본 유물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요선철릭은 조선초기까지 이어져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표 2>는 조선왕조실록¹⁴⁾에서 발췌한 요선철릭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보면 요선철릭에 관한 기록은 세조대와 성종대에 많이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유물도 변수묘 이외에는 아직 출토된 예가 없다.

1) 의복 색깔

의복에는 다양한 색깔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록에 의하면 대홍·도홍 등의 홍색계와 아청·남 등의 청색계, 그리고 백색 등이 있다.

2) 직물

라·면주·주 등의 얇은 견직물과 필단 같은 두꺼운 견직물, 저포의 모시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춘추용·여름용·겨울용으로 나누어 계절에 맞는 옷감을 사용한 것 같다.

3) 봉재 유형

홀옷·겹옷·숨옷 등의 3가지 유형이 보이며,

주의 경우는 겹옷이 많고 단은 속에 숨을 넣어 만든 것 같다. 변수의 유물에서 보면 겹옷인 경우에는 직물 사이에 숨과 한지(저주지)를 얇게 넣어 사용하였다.

4) 요선의 색깔

실록에 기록된 대홍주남요선겹철릭은 대홍주 바탕에 남색 요선을 친 겹철릭으로 생각된다. 변수의 요선철릭은 바탕과 다른 색으로 요선을 장식한 것과 바탕과 같은 색 천으로 요선을 장식한 2가지 양식이 보인다. 기록에도 요선의 색을 명기한 것과 명기하지 않은 것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요선이 바탕과 같은 색은 따로 요선의 색을 명기하지 않고, 바탕과 다른 색으로 요선을 장식한 것만 요선 색깔을 명기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본다. 실록에 나타난 요선은 모두 홍색의복 바탕에 남색으로 요선을 친 기록이 있는데, 변수1 요선철릭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5) 용도

요선철릭은 중국사신이나 국가의 문무공신에게 내린 하사품, 선물용으로 사용된 것 같다. 사여된 시기는 1월, 3월, 5월, 7월로 1월에는 라, 주, 단이고, 3월에는 라와 면주, 5월에 저포와 주를 사용하였다.

6) 요선의 유형

유물에서 살펴보면 요선을 제작한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요선 제작 방식과도 일치하는 것 같다.

가. 몸판에 직접 턱을 잡아 만든 것(Type 1)

나. 짠 끈을 부착한 것, 명주를 쌍밀이 단추 형식으로 양쪽에서 말아서 만든 것(Type 2)이 있다.

1) 공통점

(1) 끈은 깃의 요선의 : 중국의 요선의에는 직령, 곡령, 방령의 세가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직령의 깃에 요선이 있는 것만 나타났다.

(2) 요선의 유형

요선의 유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원 명

<표 2>조선왕조실록의 요선철릭

연 도	명 칭	색깔	직물	요선	봉제상태	착용자	비고
세조6년 (1460)	대홍라요선철릭 (大紅羅腰線帖裏) 아청라요선철릭 (鴉靑羅腰線帖裏)	대홍 아청	라 라			중국사신	하사품
	대홍면주남요선겹철릭 (大紅綿紬藍腰線袂帖裏)	대홍	면주	남요선	겹	여진족	하사품
	백저포요선철릭 (白苧布腰線帖裏)	백	저포				하사품
성종1년 (1470)	도홍라요선철릭 (桃紅羅腰線帖裏)	도홍	라			중국사신	하사품
성종5년 (1474)	대홍주요선겹철릭 (大紅紬腰線袂帖裏)	대홍	주		겹	중국사신	하사품
성종11년 (1480)	대홍주남요선철릭 (大紅紬藍腰線帖裏)	대홍	주	남요선		중국사신	하사품
성종12년 (1481)	대홍주남요선겹철릭 (大紅紬藍腰線袂帖裏)	대홍	주	남요선	겹	중국사신	하사품
성종14년 (1483)	대홍주남요선겹철릭 (大紅紬藍腰線袂帖裏)	대홍	주	남요선	겹	중국사신	하사품
성종17년 (1486)	대홍필단요선유철릭 (大紅匹段腰線襦帖裏)	대홍	필단		유 (숨)	여진족	하사품

3. 한국과 중국의 요선의복 특징 비교

우리나라 요선철릭의 연원은 중국의 변선오와 요선오자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의 유물 1점과 조선시대의 유물 3점, 실록의 기록 등 밖에 찾지 못했지만 이들 유물과 문헌상에 나타난 요선철릭과 중국의 의복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요선철릭은 비교하기에는 첫 번째로 용어상의 문제점과 형태상의 차이점이 있으나 요선이 있는 의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¹⁵⁾, <표 4>와 같다.

에 나타난 유물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2가지의 유형이 나타난다.




가. 몸판에 직접 턱을 잡아 만든 것(Type 1)

나. 짠 끈을 부착한 것, 명주를 쌍밀이 단추 형식으로 양쪽에서 말아서 만든 것(Type 2)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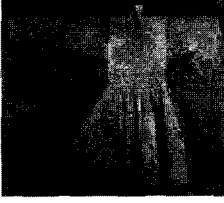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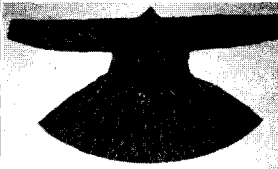


(3) 색깔 : 요선의에 사용한 색깔은 주로 홍색계와 청색계이다. 중국은 비·자·홍 색을, 우리나라는 대홍·아청색·청색을 사용하였다.

(4) 재료 : 요선의는 사계절 모두 사용한 것 같다. 봄가을용으로는 주, 라를, 여름용으로는 저포를, 겨울용으로는 단 등의 비단류를 사용한 것 같다.

<표 3> 중국과 우리나라의 요선의복

시기	중국(元)		우리나라(고려)		중국(明)		우리나라(조선)	
구분 것의 종류	명칭	형태	명칭	형태	명칭	형태	명칭	형태
곧은깃	변선오	 元人步射圖의 변선오 - 沈從文, 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397쪽, 商務印書館香港分館	요선철릭	 송부개 요선철릭 -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품)	요선오자 (예살)	 鄒縣 朱檀墓 出土 織金緞龍袍 -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429쪽, 丹青圖書有限公司	요선철릭	 변수(邊脩) 요선철릭
등근깃	등근깃 변선오자	 4인의 각기 - 요선오자 - 沈從文, 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357쪽, 商務印書館香港分館			등근깃 요선오자	 『三才圖會』의 요선오자		
네모난깃	변선오	 金代舞樂俑의 변선오(춤추는 인형) - 沈從文, 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381쪽, 商務印書館香港分館						

<표 4> 중국과 우리나라의 요선의 유형에 따른 분류

	중 국		한 국	
	원	명	고려	조선
Type 1 (제 천을 접어서 요선을 만든 것)		 <p>鄒縣 朱檀墓 出土 織金緞龍袍 -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429쪽, 丹青圖書有限公司</p>	 <p>송부개 요선철릭-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품)</p>	
Type 2 (짚 끈을 부착한 것, 비단으로 요선을 만들어 부착한 것)	 <p>鹽湖古墳出土 변선오- 문물출판사, 1973, 『文物』 10기, 29쪽.</p>			 <p>변수(邊脩) 요선철릭 1</p>
	 <p>元人射雁圖의 변선오- 沈從文, 1981, 『中國古代 服飾研究』, 397쪽, 商務印書館香港分館.</p>			 <p>변수(邊脩) 요선철릭 3</p>

2) 차이점

(1) 것의 유형 : 중국의 요선의의에는 직령·곡령·방령의 세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직령에만 요선의의가 나타난다.

(2) 명칭 : 중국은 끈은 것에는 변선오·요선오자, 둥근것에는 둥근깃 변선오자·둥근깃 요선오자, 네모난 것에는 변선오라고 각기 다른 명칭이

사용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요선철릭이라는 명칭만 실록에 보인다.

(3) 착용자 : 중국은 처음에는 신분이 낮은 시종, 의위들이 입었으나 점차 다양한 계층이 착용하였으며, 상층 계급에서도 착용하였다. 후에는 황제나 대신들도 융복으로 입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는 송부개라는 하급관리가, 조선시대에는 주로 상급관리가 입거나 하사품, 선물용으로 사용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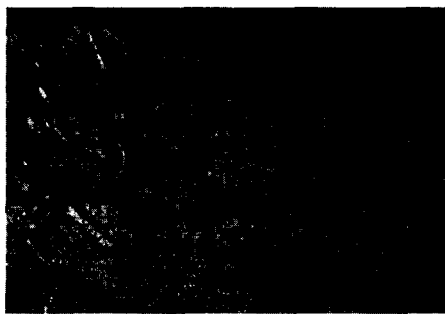
(4) 요선 위에 다른 장식을 덧붙임 : 중국은 교구가 있는 대를 매거나 가죽띠를 매고 그 위를 대석로 장식한 것이 많다. 우리나라의 요선의에는 요선 위에 덧붙인 장식이 없다.

Ⅲ. 요선철릭의 구성법

1. 형태와 구성의 일반적 특징

요선철릭의 특징은 고려말의 송부개 요선철릭과 변수의 요선철릭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송부개는 15세 소년이므로 변수(78세 卒)와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므로 실측치수의 비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철릭의 일반사항은 변수묘와 시기가 비슷한 김홍조(1461~1528)¹⁶⁾, 정온(1481~1538), 이인손(1477~1543)¹⁷⁾ 등의 조선 전기 철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6세기 전기에 해당되는 변수묘는 다른 묘의 예와 같이 출토된 복식류 중에서는 철릭의 양이 가장 많다. 또한 요선철릭이 3점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벼슬을 지내고 관직에 있었으므로 생시에 착용하였던 융복용 철릭과 편복용 철릭, 사후 친지들이 보낸 수의용 철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연화만초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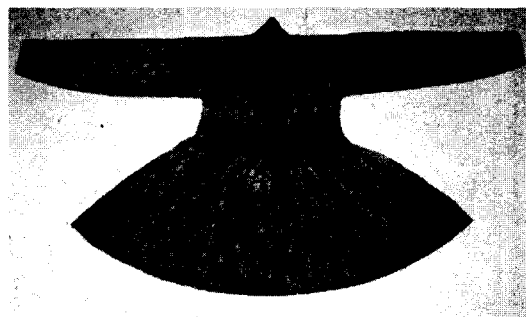
실록에는 홀·겹·숨 철릭이 기록되어 있다. 겹철릭 중에 한지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겹안감을 명주로 하고 안감 안쪽에 솜을 놓고 그 위를 한지로 덮어서 마치 한 장의 안감처럼 바느질하였다. 소재는 겹감은 연화만초문단 <그림 1>, 면주 등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겹감에 비하여 대부분 거친 명주를 사용하였다.

철릭의 색상은 기록에는 홍색계통과 남색 등이 있으나 유물은 땅 속에 오래있어서 정확한 색상을 알 수 없으나, 변색되어 황토색 또는 갈색으로 보인다. 고름은 대부분 길과 다른색인 자주색이나 남색계통의 짙은 색이고, 고름바대는 화려한 옷감을 사용하였다. 동정은 대부분 무늬가 없는 면주류를 사용하였다.

2. 실측 항목별 치수와 구성상의 특징

1) 길이

조선 전기의 철릭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길이가 125~130cm전후로 비교적 길다. 그 중 상의는 58~67cm, 치마는 61~63cm이므로 상하 비율이 거의 1:1로 의·상의 길이 차이가 없다 <그림 2>. 이는 변수묘의 다른 철릭의 치마 길이가 상의보다 5~6cm 긴 것과는 다르다. 허리에 장식된 요선이 13~14cm이므로 상의가 강조되어 길이가 그만큼 짧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송부개의 요선철릭 <그림 3>¹⁸⁾은 상하의의 비율이 43:59로 약 1:1.37이며, 조선전기의 유물에 비하여 치마길이가 약간 긴 편이다.



<그림 2> 변수 요선철릭1



<그림 3> 송부개 요선철릭

16세기 후기 철릭의 외형적 변화는 상하의 비율이 1: 1(정응두¹⁹⁾, 순천김씨, 홍계강)을 거쳐 임란 전에는 치마가 상의보다 긴 의단상장형(衣短裳長形)이 정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짧아지는 과정에서 거드랑 아래의 옆선 길이도 짧아졌다. (정응두, 이언웅). 한편 철릭의 전체 길이는 다른 포류보다 짧은 것을 보면 겹옷의 받침옷으로 입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 같다²⁰⁾. 연산군 11년(1505)에 조사의 철릭을 담호나 단령보다 짧게 만들도록 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조선 전기에는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2) 소매나비와 소매유형

조선 전기의 소매는 진동선과(평균 36.7) 수구(평균 18.7)의 길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있고, 소매쪽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착수(窄袖)형의 통소매이다. 그리고 선조 초 이후에 통수와 더불어 다소 넓어진 두리소매는 정응두의 출토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란 중(1593년)에는 대소 인원의 융복과 속옷의 소매를 모두 좁게 하도록 하는 착수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좁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의 요선철릭 소매는 3점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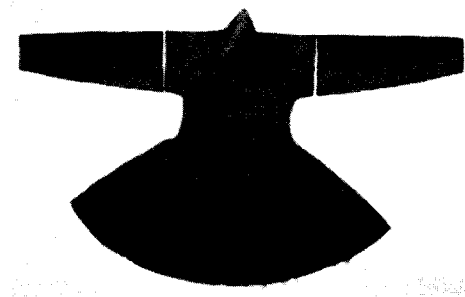
① 양쪽 소매 : 화장은 114cm(김홍조 묘는 평균 120cm)로 화장을 이루는 연결 폭 수는 옷감의 나비에 따라 다르나, 57cm폭의 광폭이므로 두 폭을

연결하였다.

② 한쪽 소매 반수: 왼쪽 소매가 반수인 것으로 화장은 116.5cm, 화장을 연결하는 폭 수는 $(33+33.5+33+18)$ 로 33cm폭을 세 폭 반으로 연결하였다. 특히 수구 쪽은 옷감 반폭을 사용하였다. 변수묘의 특징 중 하나는 한쪽 소매만 반수형인 철릭이 5점 있다. (김홍조, 이응태 묘에서도 발견됨)

③ 양쪽 소매 반수 <그림 4>: 화장은 39.5cm(31.3+8.2cm)이다. 연결용 소매의 길이는 73.5

(11.5+62)cm이었는데 반소매에 연결용 소매가 이어진 상태에서 화장 길이는 121cm이다. 양쪽 소매가 반수인 것은 드문 예로 어떤 용도로 양쪽소매를 모두 찰탁이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변수의 소매길이는 전체 길이의 비율로 환산하면 1: 0.91(125.2:114)인데 비하여 송부개의 요선철릭은 1: 0.75(102: 77.5)로 고려시대의 것이 약간 짧은 편이다.



<그림 4> 변수 요선철릭2

3) 진동선과 소매술기 길이 및 수구

진동선 길이를 실측하고 점차 소매나비가 줄어드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연결된 소매통의 치수를 재었다. 진동 치수는 36.5~37cm로 거의 유사하다. 수구는 18~19.5cm(김홍조의 38cm와 비교하면 상당히 좁은 편이다.)였으며, 3점 모두 수구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철릭의 반소매에 탈착하는 소매의 연결방법에는 매듭단추와 고리로 연결하는 방법과, 속으로 끼워 넣어 꿰매는 방법이 있는데, 변수의 철릭은 대부분 끼워 넣어 꿰매는 방법이다.

4) 겨드랑 옆선길이

겨드랑 옆선길이는 조선 전기 포의 연대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진동선의 연장선으로 겨드랑점에서 치마가 달리는 허리선까지의 길이로 <그림 5>, 21~21.5cm이다. 철릭은 모두 《악학궤범》의 철릭과 같은 긴 옆선을 하고 있다. 한편 다른 묘(정응두, 이언웅)의 철릭에서는 겨드랑 부위에 삼각무를 단 것도 발견되



<그림 5>
요선철릭2 옆선

었지만 변수묘에서는 삼각무가 달린 것은 한 점도 없었다. 전체 길이에서 겨드랑 옆선길이의 비율은 16%(125:21) 정도로 송부개 요선철릭이 12%(102:12.5)인 것에 비하면 변수묘가 다소 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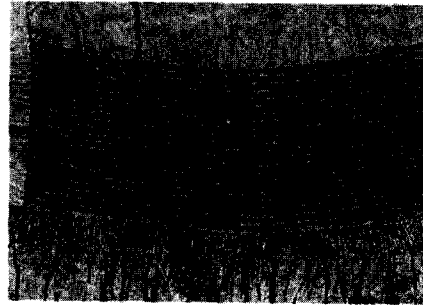
5) 뒤폭

좌측 겨드랑 옆선 중 가장 가는 부위와 우측 옆선에서 가장 가는 부위를 수평으로 잰 길이로 57.8~60cm이다.

6) 치마둘레/폭 수/주름나비

연결된 치마 폭 수는 옷감의 나비에 따라 다르나 2점은 총 14폭(469cm), 1점은 7폭(60cm폭, 420cm)으로 약 50cm 차이가 있다. 조선전기에는 계급에 따라 치마 폭 수에 규제가 있어 성종 2년(1471)의 진상하는 왕의 철릭은 14폭을 넘지 않도록 하고 사족은 13폭, 서인은 12폭을 넘기지 말라고 한 규정이 있지만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²⁾

본 분묘의 요선철릭은 모두 14폭(469cm)으로 김홍조 묘의 12폭보다 더 넓다. 주름을 잡지 않은 분량은 29.5~32.5cm 정도이다. 겹철릭의 경우 겹감은 0.2~0.3cm 간격으로 주름을 촘촘하게 잡았으나 <그림 6> 안감은 0.5~0.7cm 간격으로 겹감보다 넓게 잡았다. 그리고 가는 주름이 퍼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하여 허리선에서 1.5~2.5cm 내려온 지점에



<그림 6> 요선철릭1 주름

고정시침을 하였다. 보관이나 옷의 주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는 치마 하단에 큰 주름(겉주름 7, 속주름 3cm)이 허리주름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잡혀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 박물관 소장품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주름잡은 포가 있다.

7) 깃길이/깃나비/깃형태

총길이는 123.8~130.5cm였는데 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겹깃(평균 56.1cm)이 안깃(평균 52cm)보다 길었으며 고대는 19cm로 모두 동일하였다. 깃형태는 함께 출토된 다른 포의 깃과 동일하다. 겹깃은 '목판형 이중깃'과 '칼형 이중깃' 사이의 단계인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이다. 즉 겹깃 쪽 끝 부분이 겹깃의 가장자리 선과 연장선을 이루는 사선으로 잘리고 겹깃 쪽에 얹히는 부위는 곡선 처리되었다. 그리고 안깃은 모두 목판형이다. 임란 전에 이미 철릭의 깃으로 칼깃이 자리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³⁾

변수의 깃은 모두 이중깃이다. 이중깃이란 깃나비의 중간 정도에 길이 방향의 박음질 선이 들어가서 마치 두 조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깃은 겹인 경우에는 겹감과 안감은 따로 재단하였으며, 홑옷은 겹감과 안감을 한 장으로 말라 깃 가장자리를 접어서 만들었다. 대개 이중깃을 만들기 위해서는 깃나비의 중간 부분을 0.2cm로 접어 고운 홑질로 선을 만들었다. 깃나비는 내외를 합하여 11~12.6cm이며 내외를 비교하면 내측이 약간 넓다. 깃 상태는 솜옷이 겹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솜을 둔 경우로 구분된다. 홑옷이라도 깃은

겹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솜옷은 깃에도 길과 마찬가지로 솜을 둔다. 그러나 겹옷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겹깃 외에 깃에만 솜을 두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솜옷이나 깃에 솜을 둔 겹옷은 깃의 외측선을 0.5cm 나비의 도톰한 파이핑 효과를 얻기 위해 상침이나 고운 흠질로 둘러 박았다. 이러한 방법은 같은 시대의 저고리에서도 나타나며 김홍조 묘의 깃다는 방법과도 거의 유사하다.

8) 동정 위치/길이/나비

동정은 고운 흠질이나 세 땀 상침 등으로 고정시켰으며, 그 위치는 바깥쪽 깃길이의 겹깃 끝에서부터 26~26.5cm, 안깃 끝에서 23.2~23.8cm로 떨어져 달려 있다. 다는 방법은 현재 동정다는 방법과 같은식으로 단 것도 있지만, 겹에 동정을 붙여 놓고 위에서 공그르기 형식으로 부착한 경우도 있다. 길이는 61.4~63.5cm이며 나비는 5.6~7cm이다. 동정의 길이는 김홍조와 비슷하나 동정 나비는 김홍조(4.4cm)보다 넓은 편이다. 동정을 한 장으로 붙여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두 조각의 옷감을 이어서 만든 경우도 있다.

9) 겹깃길이, 나비

철릭에는 겹깃이 한조각 달려 있다. 단령이나 직령, 답호에서는 두 조각의 겹이 달린 것과는 다르다. 내측은 길과 연결된 앞중심선 부위의 길이로 45~46cm이다. 외측 바깥쪽 고름 달리는 부위는 18~20cm이다. 단령이나 답호와 동일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치수가 정확한 철릭의 위는 24~30cm이고, 아래는 28~32cm로 아래가 4cm 정도 넓다.

10) 안섷 쪽 주름 없는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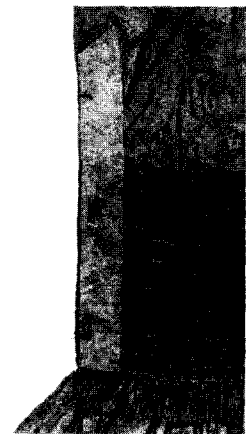
철릭의 치마 주름은 안섷 쪽 29.5~32.5cm 부위에 주름이 없다. 옷감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길의 주름과 겹치면 앞이 두툼해져 외관상 좋지 않으므로 주름을 없애서 미적 효과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 전기의 철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1) 안섷

안섷도 겹깃과 마찬가지로 한 조각이 달려 있다. 내측보다는 외측이 짧은데, 내측 길이는 22~28.5cm, 외측 길이는 10~16.6cm이다. 전체적인 길이의 구성비는 김홍조와 비슷하다. 안섷 외측선은 모두 올방향으로 재단되었다. 단령이나 답호는 사선으로 재단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안섷은 길이나 나비에 있어서 겹깃보다는 훨씬 작다. 위쪽의 나비는 4.6~7.2cm, 아래쪽은 7~9.2cm로 나타났다.

12) 고름과 고름바대

변수의 옷에는 고름이 달렸던 흔적은 있으나 고름이 붙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름은 나중에 누군가 일부러 자른 것 같다. 현대 한복과 동일한 '직접부착형고름'으로 고름바대는 금선이나 문단, 문사와 같은 고급직물이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김홍조 묘에서도 확



<그림 7> 고름바대

인 된 바 있다. 변수묘에는 답호와 철릭에 고름바대가 보이는데 형태는 모두 같다. 고름바대는 고름을 달기 위한 지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 전기 포류에서 흔히 나타난다. 철릭의 고름바대 형태는 겹깃 끝의 겹에 붙이는 경우와 안에 붙이는 형이 확인된다. 이은주는 고름바대를 장형, 규형, 일자형으로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변수묘는 고름바대의 머리부분을 사선으로 처리한 장형(璋形)에 속한다. 또한 변수묘의 고름바대는 길과는 다른 화려한 금직으로 연화문단이나 운문단을 사용한 것이 많은데, 바대의 길이는 22.5~23.5cm, 넓이는 2.7~3cm 내외로 김홍조(30cm)의 것보다는 조금 짧은 편이다. 겹에는 겹깃 끝 <그림 7>에, 오른쪽 겨드랑이 쪽의 고름바대는 옆솔기 뒷쪽으로 단다.

13) 겹고름 위치/나비/길이

겹고름은 고름바대의 길이에 준해서 양끝으로

끼워 다는데 대부분 두 쌍의 고름을 달았다. 김홍조나 정응두·홍계강의 묘에서는 쌍밀이형 끈으로 만든 고리가 있는데 변수묘는 모두 직접부착형의 고름으로 1.5~1.8cm 나비이다. 답호나 다른 철릭도 모두 직접고름형이며, 단령 1점만 바대 사이에 끈을 끼워다는 형식이 있다. 고름은 겹바느질한 겹고름이며 시접은 요즘과 같이 위로 되어 있고, 고름을 반 접어서 부착한 것이 있다.

14) 안고름 위치/나비/길이

안고름은 안깃 끝 모서리나 안깃나비의 중앙 또는 안섶과 안깃이 연결되는 부위 등에 겹고름 하나가 달렸고, 반대쪽으로는 허리선에서 14~16cm 올라온 오른쪽 겨드랑이 옆선바대에 나머지 하나가 달렸다. 안고름은 부착된 흔적으로 보아 모두 직접

부착형이다. 1.7~1.9cm나비의 26cm 길이로 다른 묘와 비슷하다.

15) 요선장식

변수의 요선철릭은 짚 끈을 부착한 것 <그림 8>과 명주를 쌍밀이 단추 형식으로 말아서 끈을 만들어 부착한 것 <그림 9>의 2가지 유형이 있고, 송부개는 핀턱(pin turk)형식이다. 이는 중국의 원대와 명대에 보이는 유형과 동일하다. 요선의 옆선 처리는 짚 끈 2줄을 사슬뜨기 형식으로 떠서 옆선 라인에 부착한 것 <그림 10>과 옆선을 표시하지 않고 허리둘레 전체를 계속 이어 붙인 양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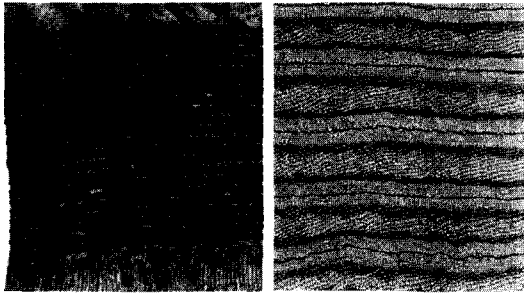
16) 기타

겹옷의 바느질은 안감과 겹감을 완성한 후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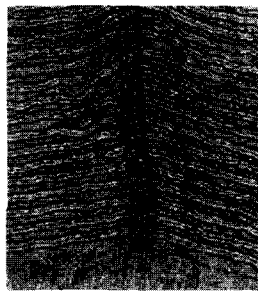
<표 5> 변수묘 요선철릭 실측표

번호		변수요선철릭 1	변수요선철릭 2	변수요선철릭 3	비고
겹감소재		연화만초문단	면주	면주	
안감소재		면주	면주	면주	
기타		겹섶바대: 금선단	왼쪽 반수	양쪽 반수	
연번	항목	치수	치수	치수	평균치수
1	총길이	124.5	123	128	125.1
2	뒷품	59	60	57.8	58.9
3	화장(품+소매1+2+3)	114(57+57)	116.5(33+33.5+33+18)	39.5(31.3+8.2)	115.2
4	짧은 소매 화장(품+소매1)		38(32+6)		38
5	옆선길이(허리까지/허리부터)	83.5(21.5+63)	84(21+63)	84.8(24.5+60.3)	84.1
6	진동/소매1/소매2/수구	36.5/34/ /19	36.7/35/31/24/18	37/35/33.3	36.7/18.5(수구)
7	짧은 소매 진동/수구		35.7/35		35.7/35
8	깃길이(겹깃+고대+안깃)	130.5(58+19+53.5)	127(55+19+53)	123.8(55.3+19+49.5)	127.1(고대19)
9	깃나비(내+외)	11.1(5.6+5.5)	12(6.5+5.5)	12.6(6.5+6.1)	11.9
10	겹깃 끝나비(내+외)	9.5(4.5+5)	9.9(4.7+5.2)	8.4(3.7+4.7)	9.3
11	동정길이/나비(겹/안)	62/5.6(4+1.6)	63.5/7(5+2)	61.4/5.9(4+1.9)	62.3/6.1
12	동정위치(겹깃끝+안깃끝)	26/28	26.5/23.5	26/23.2	26
13	큰 겹섶길이(내/외)	45/18	46/20	45.8/18.5	46/18.8
14	큰 겹섶나비(상/하)	27.5/29.5	27.7/29.2	21.3/28.5	25.5/29
15	안섶길이(내/외)	22/10	28.5/13.5	26/16.6	25.5/13.4
16	안섶나비(상/하)	7.2/9	7/9.2	4.6/7	6.2/29
17	치마주름나비(겹/안)	0.2/0.5	0.2/0.5	0.2/0.4	0.2/0.45
18	겹치마폭수/나비	7/60	14/33.5~34.5	14/33.5	14/33.5, 7/60
19	안치마폭수/나비	13.5/30.5~31.5	16/28.5~29	16/29.5~30	15/30
20	겹섶바대(길이우/길이좌/폭)	22/19.5/2.5	23.5/21.5/2.7	23.8/20.8/2.8	23.1/20.6/2.6
21	옆선바대(길이좌/길이우/폭)	20.5/19/2.5	23/21/2.7	23.8/21.2/2.8	22.4/20.4/2.6
22	요선(전체넓이/1줄넓이/요선사이간격/갯수)	13/0.3/0.4/22	14/0.3/0.3/21	14/0.3/0.3/21	13.7/0.3/0.3/21
기타	요선철릭의 치마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에서 밑단까지 큰 주름(겹주름7/속주름3cm)을 잡음.				

안 두 장을 붙이고, 가장자리는 겹에서 5cm정도 들어간 곳에 2뿔 상침하여 고정하였다.



<그림 8> 짚끈으로 만든 요선 <그림 9> 명주로 만든 요선



<그림 10> 옆선의 요선

IV. 요약 및 결론

허리에 가로로 선장식이 있는 의복은 우리 옷에서 해인사 유물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원대 복식에서는 이러한 옷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요선오자(腰線襖子)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 우리나라는 허리에 주름이 있는 요선의가 삼국시대 벽화 등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고려시대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중국의 금(金)·원(元) 등의 호복(胡服) 계통에서 유입된 옷으로 여겨진다.

요선의의 명칭은 원대에는 끈은 것인 경우에 ‘변선오’라 하였고, 둥근 끈은 ‘둥근깃 변선오자’라고 명명하였다. 고려시대 송부개의 요선철릭은 원대의 끈은 것 ‘변선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명대에는 끈은 것인 경우에 ‘요선오자’라 하였고,

둥근깃은 ‘둥근깃 요선오자’라고 명명하였다. 조선시대 변수묘의 요선철릭은 명대의 끈은 것 ‘요선오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깃은 중국은 끈은 것, 둥근 깃, 네모난 깃의 3종류가 보이고, 우리나라는 끈은 것에만 요선이 나타난다. 의색으로는 비색·자색·백색을 사용한 것 같다. 요선의 유형은 2가지 타입의 3가지 형태로 즉, 몸판에 직접 턱을 잡아 만든 것(Type1), 짚 끈으로 만든 것·비단 천을 쌍밀이 단추형식으로 만들어서 만든 것(Type2)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처음에는 신분이 낮은 시종, 의위들이 입었으나 점차 다양한 계층이 착용하였으며, 상층 계급에서도 착용하게 되었다. 후에는 황제나 대신들도 융복으로 입었다. 요선의에 사용된 옷감으로는 라, 주 등의 비단류와 직금류, 저사같은 여름용 직물 등 다양하게 모두 사용된 것 같다.

변수의 요선철릭은 3벌 모두 입었던 흔적이 있으며, 1벌은 많이 입어서 깃·소매의 수구·밑단이 매우 닳아 있다. 조선 전기의 출토품 중에는 변수묘 이외에는 아직까지 요선철릭이 발견된 예가 없어 비교하여 고찰할 수 없는 점이 한계점이다. 또한 아직까지 요선철릭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른 옷에 비하여 많이 입혀지지 않았던 고급 옷으로 하사품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 같다.

이상으로 중국의 문헌자료, 유물 사진자료를 통하여 요선철릭의 연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실록의 기록과 변수의 유물을 통하여 구성법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다른 유물이 없어서 비교하여 고찰하지 못한 점, 중국의 유물을 사진과 문헌으로만 살펴본 점이 한계점이다. 앞으로는 이 점이 보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함평 이씨 이계윤(1431~1489)묘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소장
김흥조(1461~1528)묘 : 영주시 소장
- 2) 경기도 양평군 창대리에서 출토되어 강원도 홍천군으로 이장함.
- 3) 권영숙, 이주영, 장현주 (1997). 해인사금동비로자나

- 불 복장복식과 고려 후기 의복의 특성. 해인사금동비로자나불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단. pp. 142-145.
- 4) 이은주 (1998). 16세기 전기 단령의 구성법 일례. 복식문화학회, 6(2), pp. 127~140.
- 이은주 (1999). 16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 일례. 복식문화학회, 7(2), pp. 242~256.
- 5) 김선영 (1999). 중국의 철릭에 관한 연구-원, 명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5.
- 6) 華梅 著, 박성실, 이수웅 역 (1992). 中國服飾史. 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p. 167.
- 7) 김선영 (1999). 앞의 책, pp. 36~37.
- 8) 권영숙, 이주영, 강현주 (1997). 앞의 책, p. 120.
- 9) 이주영 (2001). 조선시대 직령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6.
- 10) 최해울 (2001). 몽골 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8-60.
- 11) (原刊) 老乞大 26뒤:08, 33앞:008~09. 재인용. 서정원 (2002).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 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5
- 12) 彭大雅 撰 徐霆 疏證 (1985). 黑鞑事略. 北京, 中華書局. p. 5 재인용. 서정원 (2002). 위의 책, p. 35
- 13) 서정원 (2002). 앞의 책, p. 35
- 14)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1997).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을 이용 검색.
- 15) 김선영 (1999). 앞의 책. p.36, 38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 16) 이은주 (1998). 金欽祖(1461~1528)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 전기의 斂襲衣에 관한 고찰.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영주시.
- 17) 이은주 (1998). 李仁孫(1477~1543)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고문화 제 52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 107~122.
- 18) 권영숙 외 (1997). 위의 책. p.
- 19) 박성실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 壬辰倭亂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변수묘 출토품 중 철릭+답호+단령이 한꺼번에 입혀진 채로 출토되었는데, 철릭이 가장 밑에 입었던 포로 3벌의 포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다.
- 21) 이은주 (1999). 앞의 책, p. 244.
- 22) 이은주 (1999). 앞의 책, p. 249.
- 23) 이은주 (1999). 앞의 책. p. 244.